

생성형 AI 시대 번역학의 재구성: ‘프롬프트 링귀스트’ 직군 개념의 필요성과 역할 탐색

전현주(신한대학교)

1. 서론

1.1 연구 배경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번역학과 번역 실천의 환경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곽은주 외, 2023, 2025; 전현주, 2022, 2023, 2024a, 2024b, 2025; 탁진영 외, 2024). GPT-5, Claude 4, Gemini 등 최신 LLM은 기존의 통계 기반 기계번역(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이나 신경망 기계번역(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을 넘어, 문장 생성·요약·재서사·문체 변환·창작까지 아우르는 고급 언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Deißenböck, 2023; Koehn, 2024). 이러한 변화는 번역가의 역할뿐 아니라 번역학 자체의 연구 대상과 방법론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 능력은 종종 ‘번역가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논쟁을 촉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단순한 직업 대체 논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즉, LLM의 언어 능력이 강화될수록 ‘언어를 다루는 전문가—언어학자, 번역가, 저자—의 역할이 아이러니하

게도 주변화되고 있다’는 구조적 역설이다(Schäler, 2023; 이상빈, 2024). 이 역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아니라 언어 생산 과정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해석·설계·규범·문화 조율의 역할을 다시 사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2 문제 제기

생성형 AI는 언어의 생산과 조정을 완전히 기술적 영역으로 이전시키며, 기존 번역가·언어 전문가의 전문성을 “후편집(post-editing)”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인다(O’Brien, 2022). 문학번역에서 LLM은 유창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의미 충실성·문화적 함의·서사적 긴장감 등 핵심 번역 요소를 안정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한다(김현웅, 이상빈, 2025). 번역가들은 생성형 AI를 신뢰하기보다는 “조건부 신뢰와 구조적 불신”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보고되며(Forcada, 2023), 이는 인간의 언어적 판단 능력이 여전히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번역가는 “기계 출력의 감수자”로 축소되며, 직업적 주체성과 창조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난다(Rivas Ginel & Moorkens, 2025).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번역학적·인문학적 문제이다.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수행하는 언어 행위—요약, 번역, 재구성—는 모두 텍스트 해석, 담화 판단, 문화적 맥락화라는 인간의 인지·해석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 전반에서 프롬프트(prompt)를 설계하고 모델 행동을 통제하는 핵심 직군인 프롬프트 엔지니어(prompt engineer)는 주로 컴퓨터공학·데이터사이언스 전공자 중심으로 구성된다(Hämäläinen & Rueter, 2023). 즉, “언어모델의 핵심 자원은 language인데, 이를 통제하는 전문가가 linguist가 아니라 engineer”라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기술의 중심이 되었지만, 막상 언어 전문가는 주변화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매몰되었다.

이는 번역학과 언어학 분야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언어를 통해 생성되는 시스템에서 언어 전문가의 역할을 어떻게 복원·재정의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프롬프트 링퀴스트’(Prompt Linguist)라는 새로운 직군을 제안한다.

1.3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따라서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 번역학의 관점에서 '프롬프트 링귀스트'라는 직군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 (1) 번역학적 관점에서 본 프롬프트의 본질 규명: 프롬프트란 단순 명령문이 아니라 텍스트의 스키포스(skopos)¹⁾, 장르 규칙, 음성적·문체적 특징, 독자 모델, 문화적 함의 등을 설계하는 “언어적 번역지침”임을 밝힌다. 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을 언어적 행위로 재정의하는 다양한 연구자(곽은주 외, 2023, 2025; 전현주, 2022, 2024a, 2024b, 2025; 탁진영 외, 2024; Liu & Chilton, 2022)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 (2) LLM 기반 번역·생성 환경에서의 인간 역할 재구성: AI가 ‘생성자(generator)’가 되었다는 환상은 “it seems to be”와 “it is”의 구분을 강조한 윤나라(2023, pp. 202-206)에서도 지적되듯, 실제 프롬프트는 인간의 해석적 개입을 통해 완성되는 협업 구조임을 보여준다.
- (3) 언어 전문가의 지속 가능한 경로 창출: 번역가·언어학자의 전문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직무 모델을 제시한다(전현주, 2013, 2022, 2024a, 2024b).
- (4) 번역학의 학문적 확장: 번역학이 텍스트 변환의 학문에서 AI 언어 시스템의 설계·감독·평가의 학문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전현주, 2013, 2022, 2024a, 2024b, 2025).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RQ1) 생성형 AI 시대의 텍스트 생성 구조는 번역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1) 여기서 본 논문은 Vermeer(1978)의 Skopos 이론에서 차용한 개념어 skopos(그리스어로 ‘목적’ 또는 ‘목표’를 의미)를 ‘스키포스(skopos)’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이는 텍스트의 형식보다 기능적 목표가 우선한다는 번역행위론적 전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롬프트는 생성될 텍스트의 기능과 해석 조건을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언어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맥락에 따라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스키포스’ 표현 대신 ‘skopos’를 괄호 속에 부기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재해석될 수 있는가?

(RQ2)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왜 언어학적·번역학적 전문성이 필요한가?

(RQ3)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기존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RQ4) LLM 기반 번역·생성 환경에서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RQ5) 프롬프트 링귀스트 직군은 어떻게 교육·양성될 수 있으며 번역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RQ1~RQ5)에 순차적으로 대응하도록 각 장을 구성하였다. 특히 III장은 RQ1(텍스트 생성 구조의 번역학적 재해석), IV장은 RQ2~RQ4(프롬프트 링귀스트 개념·역할·역량)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그리고 V장에서 RQ5(교육·생태계 영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지금부터 생성형 AI의 확산을 배경으로, 번역학 및 인접 분야에서 논의된 ① 번역가 역할 변화 연구 ② 생성형 AI 번역 및 오류 연구 ③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인문학적·공학적 연구 ④ 프롬프트 기반 번역교육 및 언어 전문가 직군 연구 등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프롬프트 링귀스트’ 개념의 학술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2.1 생성형 AI 시대 번역가 역할 변화 연구

번역가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는 신경망 기계번역(NMT)의 등장 이후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며, 생성형 AI(LLM)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번역가는 “번역 생산자”에서 “후편집자”, “감수자(reviser)”, “중재자(mediator)”로 이동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보고된다(곽은주 외, 2023, 2025; 전현주, 2022, 2024a, 2024b, 2025; 탁진영 외, 2024; O'Brien, 2022; Forcada, 2023).

일부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번역가의 전문성 약화와 직업적 불안정성을

심화한다고 지적한다(Schäler, 2023). 번역가들은 생성형 AI 출력물에 대해 “신뢰(distrust)”와 “조건부 활용(trust under control)” 입장을 동시에 취한다(Rivas Ginel & Moorkens, 2025). 이는 인간 번역가의 역할이 단순 보조가 아니라 텍스트의 정확성·윤리성·문화적 적합성을 감독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보여준다. 이상빈(2024, pp. 26-28)은 생성형 AI 시대의 번역을 “바벨탑 3.0”으로 규정하며, 기계번역이 고도화될수록 번역가의 주체성이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한다. 그는 번역가가 “생산자(generator)”가 아니라 의미를 판단하고 조율하는 ‘기계 언어의 감독자(linguistic governor)’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²⁾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번역가의 전문성은 단순 번역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해석·판단·문화 조율 능력에 기반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2 생성형 AI 번역 및 오류 연구

생성형 AI의 번역 성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먼저, 번역 품질 향상 측면에서 ChatGPT 등 LLM이 다수 언어쌍에서 기존 NMT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품질을 보일 수 있음을 보고한다(곽은주 외, 2023, 2025; 탁진영 외, 2024; Guerreiro et al., 2023; Jiao et al., 2023). 문장 유창성, 장르 적합성, 문체 조절 등에서 LLM은 기존의 기계번역보다 더 자연스러운 출력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둘째, 오류 유형 및 언어적 리스크 측면에서는 LLM의 번역 오류가 논리적 비약, 사실 오류(hallucination), 문화적 비정합, 서사적 긴장감 상실, 음미가 필요한 문학·종교·철학 텍스트 번역에서의 충실성 결여 등에서 기존 MT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곽은주 외, 2023; Li et al., 2024; Toral, 2023).

한편, 프롬프트의 사용 방식이 번역 결과물의 충실성·유창성·문체 유지에 큰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곽은주 외, 2025; 김현웅, 이상빈, 2025; 전현주 2025). 특히 프롬프트가 구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설계될수록 오

2) “미래의 ‘번역가’는 ... 오류를 찾아 표시하는 주석자(error annotator), ... 큐레이터(curator)/감독자(supervisor), ... 검증자 validator)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일 수 있다.”(이상빈, 2024, p. 27)에 대한 필자의 포괄적인 해석을 추가하여 표시하였다.

류가 감소한다는 점은 “프롬프트 설계 능력”이 번역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의미한다. 또한 LLM이 제공하는 ‘초고(draft)’의 품질은 높지만, 문화적 함의·텍스트 기능·맥락 일관성 등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LLM 기반 번역은 표면적으로는 정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적·해석학적 판단의 부재로 인해 구조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층적 언어 전문성에 기반한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2.3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구: 공학 중심 접근과 그 한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한 연구 분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모델 성능 향상, 지시문 최적화, 퓨샷(few-shot)³⁾ 예시 구성, 생각의 사슬(CoT, chain-of-thought) 설계⁴⁾ 등 공학 및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관점에서 접근한다(Brown et al., 2020; Wei et al., 2022).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프롬프트를 주로 기술적 입력(instruction)으로 간주하여, 프롬프트가 지닌 의미적·해석학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즉, 선행 연구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API 명령·모델 파라미터 조정 등 기술 중심 관점에서 다루어 온 데 반해, 일부 연구는 프롬프트가 단순 기술적 명령이 아니라 사용자의 해석·의도·목적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언어적 산물임을 강조한다(윤나라, 2023, pp. 206-213). 특히 프롬프트는 ‘노이즈로부터의 생성’을 조절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기계의 자체적 창의성 개념을 비판하며, ‘AI 창작물은 인간의 언어적 설계물’이라는 해석학적 관점을 강화한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언어적·해석학적 행위로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3) 다양한 프롬프팅 기법(예: Zero-shot, Few-shot, Style-specific, Step-by-step 등) 중 하나로 예제, 혹은 맥락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곽은주 외, 2025).

4) CoT 프롬프팅은 모델에게 최종 답변을 바로 요구하는 대신, 추론 과정, 즉 ‘생각의 흐름’을 단계별로 보여주도록 지시한다. 이는 마치 사람에게 수학 문제를 풀 때 답만 적지 말고 풀이 과정을 함께 적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Prompt Engineering Guidelines)(Liu & Chilton, 2022)⁵⁾은 프롬프트를 텍스트 장르, 문체, 의미 프레임, 문화 규범 등의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는 번역학과 직접 접점을 형성한다.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언어·텍스트·문화·독자 모델·기능적 목적을 조율하는 번역학적 행위라는 관점이 부상하고 있다.

2.4 프롬프트 기반 번역 교육 및 직군 연구

국내에서는 최근 ‘프롬프트 교육(prompt education)’이 번역 교육과 결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의 역량 함양 효과(김대중, 2025), 문장구역 수업의 보조도구로서의 프롬프트 개발 연구(최은실, 2025),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현황 및 전망(탁진영 외, 2024) 등의 연구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할 때 프롬프트 조정 능력이 번역 품질 향상에 결정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인공지능 번역플랫폼 기반 번역가의 직명 및 직무기술의 분화 연구(전현주, 2022)는 생성형 AI 시대 번역가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직무 스펙트럼을 품질관리자(QA), 데이터 라벨러, MTPE 전문가, AI 번역 조율자 등으로 분리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나의 독립된 언어 전문 직군으로 제안하지는 못했다. 프롬프트 설계는 여전히 공학 중심으로 간주되며, 언어 전문가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재정립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

2.5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선행 연구들은 생성형 AI가 번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탐구해 왔다. 번역가의 역할 변화(전현주, 2024a, 2024b; O'Brien, 2022; Schäler, 2023), 프롬프트에 따른 번역 품질 차이(곽은주 외, 2025; 전현주, 2025; Liu

5) 실제 논문명은 Prompt Engineering 101, Prompt Engineering Guidelines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Liu & Chilton, 2022)이지만 논지의 맥락을 고려한 필자의 표기임을 밝혀둔다.

& Chilton, 2022), AI 번역 오류 연구(곽은주 외, 2023, 2025; Guerreiro et al., 2023; Toral, 2023) 등은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프롬프트를 공학적 행위로 한정하여, 언어학적·번역학적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못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구의 대다수는 HCI·컴퓨터공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프롬프트를 “모델 입력 최적화 기술”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다(Brown et al., 2020; Wei et al., 2022). 윤나라(2023)의 연구 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담론이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며, 프롬프트의 언어적·해석학적·서사적 성격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언어 텍스트의 설계 행위’이자 ‘번역학적 판단을 포함하는 해석 활동’으로 다루려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번역가의 역할 변화는 설명하지만, 번역학 관점에서 새로운 전문직 모델을 명시적으로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 번역가의 역할 변화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이상빈, 2024; 전현주, 2024a, 2024b; O'Brien, 2022; Forcada, 2023), 이 연구들은 대부분 MTPE·감수·품질관리(QA) 등 기존 번역 노동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다. 인공지능 번역플랫폼 기반 번역가 직무 기술의 분화 연구(전현주, 2022) 역시 직무 변화는 제시하지만, 프롬프트 설계를 수행하는 언어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군 모델’ 자체를 제안하지는 않는다. 즉, 번역학 기반의 새로운 전문직군 개념화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셋째, 프롬프트 설계가 텍스트 품질을 좌우한다는 실증은 존재하나, 이를 수행할 전문가 집단(linguistic prompt expert)의 개념화가 결여되어 있다. 문학번역 오류 연구(김현웅, 이상빈, 2025; 전현주, 2025), 프롬프트 유형에 따른 번역 개선 실험(곽은주 외, 2025), 프롬프트 기반 번역 연구(곽은주 외, 2025; 전현주, 2025; Feng et al., 2023) 등은 프롬프트의 구체성·맥락성·텍스트 프레이밍이 AI 번역 정확도·문체 유지·문화적 적절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누가 그러한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 즉, 언어(학) 프롬프트 전문가(linguistic prompt expert), 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롬프트 링귀스트(prompt linguist)를 하나의 직군으로 개념화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넷째, 번역가·언어학자가 프롬프트 설계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직군·직무 중심의 이론적 논의가 부재하다. 번역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존재하지만(전현주, 2022, 2024a, 2024b; 최은실, 2024; O’Hagan, 2019), 그 전문성이 LLM 시스템 설계—특히 프롬프트 작성·담화 통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직무 재정립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번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판단자(judge), 감수자(reviser), 오류 탐지자(detector)로 설명되지만, 프롬프트 기반 텍스트 생성 설계자(designer)나 언어적 조율자(linguistic orchestrator)로 승격되는 관점은 제시되지 않는다. 요컨대 기존 연구는 AI 시대 번역가의 ‘직무(task)’는 기술이지만 ‘직군(profession)’을 재개념화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시대 번역학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언어적·해석학적·문화적 행위로 재정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직군인 ‘프롬프트 링퀴스트’를 제안한다. 이는 (1) 프롬프트와 언어 생성의 관계에 대한 번역학적 분석, (2) 기존 번역가 역할 재검토, (3) AI 번역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전문 직군 모델 구축 등에서 기존 연구가 충족하지 못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이다.

물론 현재 번역 실무에서는 프롬프트 작성이 반드시 엔지니어의 전유물은 아니며, 번역가·에디터·PM 등 언어 전문가가 실질적 사용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한다. 본 연구가 문제 삼는 ‘엔지니어 중심화’는 기술 산업의 구조적 경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번역 산업의 실무 구조와 혼동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프롬프트의 언어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문성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논의

본 장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의 번역 행위와 언어 생성 과정을 번역학적 관점에서 재해석(RQ1)하기 위해, ① 번역학의 핵심 개념 ② LLM의 언어 생성 메커니즘 ③ 프롬프트의 언어적·해석학적 본질 ④ 인간-AI 협업 구조의

재정의를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 링귀스트가 등장해야 하는 학문적·실천적 이유를 제시한다.

3.1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과 번역학: ‘텍스트 변환’이라는 공통 기반

- (1) 번역학의 관점에서 번역은 ‘텍스트 변환(text transformation)’의 행위이다. 번역학은 오랜 기간 번역을 단순한 언어 대치가 아닌 텍스트의 기능적 변환(skopos), 독자 재구성, 문화적 조정, 의미 협상 행위로 이해해 왔다(Venuti, 1995; Toury, 2012; Reiss & Vermeer, 2014). 이러한 준거 틀에 따르면 번역은 원문의 목적 분석, 장르·문체 판단, 독자 상정과 의미 재구성, 문화적 조정, 텍스트의 재배열과 재문식화(再文飾化, re-formulation)를 포함한 복합적 해석 과정이다.
- (2) LLM의 언어 생성 과정 또한 ‘텍스트 변환’ 메커니즘에 기초한다. GPT·Claude 등 LLM의 출력은 예측(prediction)에 기반하더라도, 실제로는 입력 텍스트를 재구조화·재해석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이다(곽은주 외, 2025; 전현주, 2025; 탁진영 외, 2024; Korngiebel & Mooney, 2023). 따라서 번역, 요약, 초고 작성, 재서사, 문체 변환 등 LLM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텍스트 변환 행위라는 점에서 번역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즉, LLM의 언어 생성은 현대적 의미의 ‘번역적 행위(translation-like act)’이다. 이 관점에서 LLM은 텍스트 변환자로서 번역학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3.2 프롬프트의 언어적·해석학적 본질

- (1) 대다수의 공학적 연구는 프롬프트를 “입력값(input)” 또는 “지시문”으로 단순화(Brown et al., 2020)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프롬프트는 ‘명령어(command)’가 아니라 ‘텍스트 설계지침(text design instruction)’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가령, 윤나라(2023)는 프롬프트가 이미지든 텍스트든 사용자의 해석·의도·문화적 판단·텍스트 설계 전략이 정교하게 반영된 언어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또한 Liu & Chilton(2022)은 프롬프트가 다음을 구성하는 장치임을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텍스트 장르 설정, 문체·톤 조율, 독자 모델링, 문화적 문맥 부여, 논증 구조 제시, 과정(step-by-step) 지정. 이는 프롬프트가 단순 언어 입력이 아니라 텍스트의 목적·구조·형식·기능을 설계하는 언어적 메타 지침(meta-instruction)임을 의미한다.

- (2) 프롬프트는 해석학적(hermeneutic) 판단의 결과물이다. 가다머(Gadamer, 1998)가 말한 해석의 조건성—사전 이해(pre-understanding), 문화적 배경, 해석자의 목적—은 프롬프트 설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프롬프트 작성자는 다음을 해석해야 한다: 어떤 텍스트를 만들 것인가? 어떤 스코프를 달성해야 하는가? 어떤 독자를 상정하는가? 어떤 문화적 해석을 반영해야 하는가? 어떤 가치·규범을 우선해야 하는가? 즉, 프롬프트는 ‘의미 해석의 산물’이며 프롬프트 작성자는 ‘해석자(interpreter)’이다.

3.3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 구조와 인간의 역할: 협업 모델의 재정의

- (1) 기존 AI 번역 모델에서 인간은 주로 후반집자(PE)로 위치 지어졌으며, MTPE(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는 오랫동안 ‘기계가 번역 → 인간이 수정’이라는 단계적(workflow-based)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O’Brien, 2022). 물론 MT 사용 환경에서는 전처리(pre-editing) 작업 또한 존재하며, 이는 인간이 번역 전 단계에서 텍스트를 조정하여 기계번역 품질을 높이려는 부분적 순환구조(partial feedback loop)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개입이 존재하더라도, 전통적 MTPE 모델에서 인간의 역할은 대체로 ‘오류 수정자(error corrector)’ 혹은 ‘품질 보정자(quality adjuster)’에 한정되며, 텍스트 생성 과정 전체를 주도하는 주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었다.
- (2) LLM은 ‘프롬프트 → 생성 → 조정 → 재생성’의 순환구조를 형성한다.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은 다음과 같은 반복적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 프롬프트 설계 ㉡ 모델 출력 ㉢ 인간의 판단 및 재설계 ㉣ 모델의 재생성. 이 구조는 번역학의 ‘순환적 해석 과정(hermeneutic circle)’과 유사하며, 인간이 의미를 선택·조율·해석·설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 (3)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언어 생성 시스템의 감독자·설계자’로 이동한다. 이상빈(2024)은 생성형 AI 시대 번역가를 “기계어의 감독자 (linguistic governor)”⁶⁾라고 정의하며, 번역가의 역할은 “생성”이 아니라 기계가 생성하는 텍스트의 방향·형식·기능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인간 번역가는 이제 의도와 목적을 설계하고, 의미를 조율하고, 텍스트 기능을 정의하고, 모델 행동을 규제하며, 문화적 함의를 통제하는 언어적 아키텍트(architect)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3.4 프롬프트 링귀스트 개념의 이론적 기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다음 세 가지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정당화한다.

첫째, 번역학의 관점에서 프롬프트는 목적지향적 스킴포스 설계 행위이다. 프롬프트는 텍스트 목적을 설정하는 “스킴포스 기반 설계 행위”이며 (Reiss & Vermeer, 2014), AI의 생성 결과물을 특정 기능과 독자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 따라서 프롬프트 설계는 번역학적 판단을 포함한다.

둘째, 언어학의 관점에서 프롬프트는 장르·문체·담화 규칙을 조절하는 텍스트 구조화 기제이다. 텍스트 언어학(Text Linguistics)과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은 텍스트가 기능·구조·장르 규칙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며(Beaugrande & Dressler, 1981), 프롬프트는 이러한 규칙을 LLM에 명시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프롬프트 작성자는 담화 규칙을 조절하는 전문가이다.

셋째, AI와 인문학 관점을 적용한 인간-기계 협업 모델에서 인간은 의미의 중심에 있다(전현주, 2020, 2022). 윤나라(2023)의 프롬프트 연구는 인간의 사유·의도·해석이 AI 생성 과정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AI의 창의성을 “인간 해석의 반영”으로 본다. 이는 프롬프트 링귀스트가 수행하는 언어적·해석학적 의미 설계를 정당화한다.

6) 각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빈(2024)이 제시한 감독·검증 중심의 역할 변화 논의를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계 언어의 감독자(linguistic governor)’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한다.

4. 프롬프트 링귀스트 직군의 개념 제안과 역할 모델

본 장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언어 전문 직군으로서 '프롬프트 링귀스트'를 제안한다(RQ2~RQ4).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기존의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달리, 언어·문화·담화·텍스트를 중심으로 LLM의 언어 생성 과정을 설계·조정·감독하는 언어 기반 전문가이다. 이들은 번역학·언어학·담화 분석·AI 윤리 등 다학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산출하는 텍스트가 의도·맥락·문화적 적합성에 부합하도록 의미 구조를 정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단순히 기술적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기능적 역할이 아니라, AI와 인간 협업 환경에서 언어 생성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번역·언어 서비스 생태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고도화하기 위한 핵심적 전문 직군 모델이라 할 수 있다.

4.1 프롬프트 링귀스트의 개념 정의⁷⁾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프롬프트 링귀스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롬프트 링귀스트란, LLM의 언어 생성 과정을 해석학적·번역학적·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통제·설계·감독하는 전문 언어 실무자로서, 텍스트 목적(스코포스), 장르 규범, 담화 구조, 문화적 함의, 독자 모델링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언어 전문가이다.

이 정의는 다음의 이론적 전제에 기반한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변환 시스템이며(Li et al., 2024), 프롬프트는 언어적 설계 지침(meta-instruction)이고(Liu & Chilton, 2022), 인간 작성자의 해석이 AI 출력 품질을 결정한다(곽은주 외, 2025; 윤나라, 2023; 이상빈, 2024; 전현주, 2025). 따라서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AI 언어 생성 체계 전체를 언어적·문화적 관점에서 조율하는 직군으로 개념화된다.

7) 본 연구는 프롬프트 링귀스트라는 개념적 모델의 정초와 이론적 구조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 산업별 역할 구조나 기존 직무(MTPE, QA 등)의 기능적 범위는 연구의 핵심 논지—프롬프트의 언어학·번역학적 재해석—와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4.2 기존 프롬프트 엔지니어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Brown et al., 2020; Wei et al., 2022)에서 정의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모델 파라미터, 입력 형식, API 최적화, 시스템 프롬프트 구조 등을 다루는 기술 중심 직군으로 규정된다. 반면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기술적 접근보다 언어 기반 접근을 중심으로 AI의 행동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표 1
프롬프트 엔지니어 vs. 프롬프트 링귀스트 비교

구분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 링귀스트
핵심 기반	컴퓨터공학, HCI	번역학, 언어학, 담화 분석
목표	모델 정확도·효율성 향상	텍스트 품질·문화 적합성·담화 일관성 확보
관점	시스템 중심	언어/텍스트 중심
방법	입력 최적화, CoT 설계	스코프스 설정, 장르·문체 설계, 의미 조율
결과물	기능 중심 출력	목적지향적·해석학적 텍스트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기술적 역할을 보완할 뿐 아니라, AI 언어 생성의 목적·의미·문화적 적합성을 정의하고 조정하는 핵심적 언어 주체로 기능한다. 즉,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AI 출력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생성형 AI 시대 텍스트 생산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4.3 프롬프트 링귀스트의 핵심 역할 모델

프롬프트 링귀스트의 역할⁸⁾은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기능으로 구분할 수

8)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특정 번역 업무에 한정된 전문가가 아니라, LLM의 언어 생성 전 과정에서 해석·의미·담화·문화적 조건을 설계하는 언어 기반 조율자라는 범주를 적용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MTPE 전문가와 번역 QA 담당자가 주로 생성된

있다.

(1) 텍스트의 스코포스 설계자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생성될 텍스트의 목적, 기능, 독자, 장르, 매체적 특성을 분석하고 스코포스 기반 설계지침을 구축한다(Reiss & Vermeer, 2014). 가령, ‘법률 번역’과 ‘문학작 재서사’는 전혀 다른 프롬프트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번역학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텍스트 목적 분석 능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영역이다.

(2) 장르·문체·담화 규범 조율자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텍스트 언어학 관점에서 문장 결속성, 정보 구조, 담화 의도, 장르 규칙을 프롬프트로 명시적으로 표현한다(곽은주 외, 2025; 전현주, 2025; Beaugrande & Dressler, 1981). 가령, 학술적 추론은 ‘형식적·증거 기반·절대적 단정 대신 조심스러운 추론 방식(formal, evidence-based, hedged reasoning)’, 문학 텍스트는 ‘서사적 리듬, 감각적 형상화, 초점화(narrative cadence, sensory imagery, focalization)’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엔지니어가 수행할 수 없는 언어적 판단 영역이다.

(3) AI 언어 생성의 의미·문화 감독자(Meaning & Cultural Governor)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문화적 함의(cultural nuance), 상징적 의미(symbolic meaning), 문체·정체성 요소, 민감한 표현의 윤리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특히 문학번역·창작·교육 분야에서 중요하며 LLM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라는 점에서(곽은주 외, 2025; 전현주, 2025; Li et al., 2024) 전문성이 요구된다.

텍스트를 평가·수정하는 사후적(post-hoc) 품질 개입이라면,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특정 번역 작업의 세부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 생성의 전(모든) 단계에서 의미 형성 조건, 담화적 틀, 문화적 해석 가능성을 설계하는 사전적(pre-constructive) 언어 조정자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즉, MTPE가 ‘수정’ 중심의 국지적 개입 모델이라면,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텍스트 생성 과정의 방향·목적·해석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정하는 거시적 설계자라는 점에서 그 범주와 역할의 차이가 존재한다.

(4) 루프 기반 반복 설계자(Iterative Prompt Designer)

생성형 AI는 프롬프트 → 출력 → 평가 → 재프롬프트 → 재출력의 순환적 과정으로 텍스트가 완성된다.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이 과정을 설계하며 오류 감소, 의미 손실 방지, 문체 유지, 서사적 긴장감 보존을 위해 프롬프트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한다. 윤나라(2023)가 강조하듯 프롬프트 설계는 논리적 시행착오(trial and error)의 언어 작업이며 이는 고도의 해석학적 능력을 요구한다.

4.4 프롬프트 링귀스트의 전문 역량 모델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생성형 AI 시대의 언어 기반 생산 체계를 설계·조율·감독하는 전문가로서, 그 직무 수행에는 다층적 언어 능력과 AI 이해가 통합된 복합적 역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프롬프트의 언어적·해석학적 성격(곽은주 외, 2025; 윤나라, 2023; 전현주, 2025; Liu & Chilton, 2022), LLM의 순환적 생성 구조(Guerreiro et al., 2023), 그리고 번역학의 텍스트·문화 조정 패러다임(Reiss & Vermeer, 2014; Venuti, 1995)을 바탕으로, 프롬프트 링귀스트의 전문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핵심 역량(competence) 영역(C1~C5)으로 구조화하였다.

(1) C1. 언어 해석 역량

번역학의 핵심 단계는 ‘해석’이다. 번역학은 번역을 단순 치환이 아니라 “해석-조정-재구성”으로 이해한다(Toury, 2012; Venuti, 1995). 프롬프트는 LLM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므로, 프롬프트 작성자는 의미 해석, 텍스트 목적 판단, 장르·문체 인식 등을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C1은 프롬프트 설계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

(2) C2. 텍스트 설계 역량

프롬프트는 ‘텍스트 설계지침(text design instruction)’이다. LLM에게 어떤 텍스트를 산출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 명령이 아니라 텍스트 구조·문체·독자 모델링 등 문학·언어학·텍스트 분석의 근간이 되는 의사결정이다(Liu & Chilton, 2022). LLM의 출력 품질은 프롬프트로 제공되는 텍

스트 프레임 구성 능력에 좌우되므로, 텍스트 설계 역량은 프롬프트 링귀스트의 중심축이다.

(3) C3. 문화·윤리 감수성

이는 LLM의 가장 취약한 영역이며 인간의 판단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AI는 문화적 맥락, 암묵적 의미, 금기·민감 표현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다(Li et al., 2024; 김현웅, 이상빈, 2025). 번역학에서 문화 조정(cultural mediation)은 번역가의 고유 역할로 간주되며(Reiss & Vermeer, 2014), 해석학에서도 인간이 가진 문화적 편향·배경지식이 필수적 요소이다.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AI의 출력에서 왜곡, 편향, 문화적 부적합성, 위험 표현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C3은 AI 윤리 + 번역학 + 다문화 감수성이 결합된 핵심 역량이다.

(4) C4. AI 상호작용 역량

LLM 생성 과정은 본질적으로 '순환적(iterative)'이다. 생성형 AI는 프롬프트 → 출력 → 평가 → 재프롬프트 → 재출력이라는 루프 구조로 언어를 생성한다. 이 과정은 번역학의 “해석-반성-재해석(Hermeneutic Circle)”(Gadamer, 1998)과 유사하며, 언어적 판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연쇄적 사고 유도 기법인 Chain-of-Thought(CoT), 일관성 기반 추론 전략인 self-consistency, 그리고 예시 기반 지시 방식인 few-shot prompting 등 최신 AI 패턴은 단순 명령이 아니라 “언어 기반 상호작용 전략”을 요구한다. 따라서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이러한 AI와의 협업적 생성 구조 속에서 언어적 의미를 조율하고 설계하는 전문적 언어 조정자로 기능한다.

(5) C5. 품질관리 역량

최종 텍스트의 품질 통제는 AI가 아닌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 번역·문서·콘텐츠 생산의 산업 현장은 BLEU, TER, COMET 등 품질 평가 기준⁹⁾을

9)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는 참조 번역과의 n-gram 유사도를 기반으로 번역의 정확성을 정량화하는 전통적 평가지표이며, TER(Translation Edit Rate)은 참조 번역으로의 수정에 필요한 편집 횟수를 측정하여 후편집 비용과 난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곽은주 외, 2025; Forcada, 2023; O'Brien, 2022), 모든 AI 기반 텍스트 작업은 결국 인간이 품질을 책임진다. LLM 출력은 종종 “유창하나 오류가 있는(hallucinated fluency)”(곽은주 외, 2023; 탁진영 외, 2024)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화적 적정성과 의미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문 QC(quality control) 능력이 필요하다. 프롬프트 링귀스트는 생성 과정, 텍스트 기능, 목적, 정확성·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품질 감독자(quality governor)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러한 역량 모델을 다음의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프롬프트 설계·해석·문화 조정·AI 상호작용·품질관리 등 프롬프트 링귀스트의 수행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표 2
프롬프트 링귀스트의 전문 역량 모델(C1~C5)

구분	역량 영역	핵심 구성 요소	주요 적용 맥락	기존 프롬프트 엔지니어와의 차별성
C1	언어 해석 역량 (Interpretive Competence)	① 텍스트의 스코프스 분석 ② 응집성·일관성 판단 ③ 담화 의미 해석 ④ 스타일·정체성 파악	번역 초안 설계, 텍스트 재구성, 문화적 맥락 해석	엔지니어는 구조적 입력 설계, 링귀스트는 의미·맥락·기능 판단
C2	텍스트 설계 역량 (Text Design Competence)	① 문서 구조 설계 ② 장르·문체 조절 ③ 정보 구조화 ④ 독자 모델링	프롬프트 목적 설정, 문체·톤 조율, 장르 기반 생성 조정	엔지니어는 최적화, 링귀스트는 텍스트 레토릭·장르 규칙 적용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COMET(Crosslingual Optimized Metric for Evaluation of Translation)은 원문·참조·생성 번역을 함께 고려하여 의미적 유사성과 문맥 일관성을 평가하는 최신 의미 기반 지표로, 인간 평가와의 상관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된다(곽은주 외, 2025, pp 14-15).

C3	문화·윤리 감수성 (Cultural & Ethical Sensitivity)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적 뉘앙스 조정 ② 편향·차별 표현 식별 ③ 위험·민감 콘텐츠 평가 ④ 윤리적 언어 판단 	문학번역, 뉴스 작성, 교육 자료, 다문화 콘텐츠	엔지니어는 데이터 편향 관리, 링퀴스트는 문화·윤리 의미 해석
C4	AI 상호작용 역량 (AI Interaction Competenc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복적 프롬프트 설계 (Iterative design) ② Chain-of-Thought 조정 ③ 모델 행동 예측 ④ 평가 → 재프롬프팅 루프 운영 	AI와의 협업 기반 텍스트 생산, 오류 감소·보정	엔지니어는 모델 성능 조정, 링퀴스트는 언어적 조율 중심의 루프 설계
C5	품질관리 역량 (Quality Governance Competenc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오류 유형 분석 ② 기능적 충실성 평가 ③ BLEU/TER/COMET 기준 적용 ④ 텍스트 품질 기준 수립 	전문 번역 감수, 문서 QA, 로컬라이제이션 품질 통제	엔지니어는 평가 자동화, 링퀴스트는 의미·기능 중심 품질 감독

본 역량 모델(C1~C5)은 개념적 구조화를 목표로 하며, 실증적 검증과 산업 적용 가능성은 후속 연구에서 탐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르별·워크플로우별 프롬프트 설계 사례 연구는 본 모델의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의 급격한 기술적 변화 속에서 번역학의 관점

에서 ‘프롬프트 링퀴스트’라는 새로운 언어 전문직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하였다. 번역학의 핵심 개념인 스코포스, 텍스트 기능, 문화적 조정, 해석학적 이해는 모두 프롬프트 설계 행위와 긴밀히 연결되며, LLM의 언어 생성 구조는 본질적으로 텍스트 변환(translation-like transformation)이라는 점에서 번역학의 분석 범주 안에 놓인다.

따라서 프롬프트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입력이 아니라 언어·문화·담화·텍스트 목적을 포괄하는 고도의 해석적 작업이며, 이를 수행할 전문직군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논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프롬프트 링퀴스트의 ① 개념 정의 ② 기존 프롬프트 엔지니어와의 구분 ③ 역할 모델(스코포스 설계·장르 조정·문화 감독·AI 상호작용 등) ④ 전문 역량 모델(C1~C5)을 제시하였다. 이 역량 구조(C1~C5)는 번역학·언어학·LLM 상호작용의 이론적 기반 위에서, 프롬프트 링퀴스트가 수행해야 할 실천적 기능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서문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주요 답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RQ1), 생성형 AI 시대의 텍스트 생성 구조는 번역학의 관점에서 텍스트 변환(text transformation)과 해석학적 재구성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LLM의 언어 생성은 단순 예측이 아니라 스코포스, 담화 구조, 문화적 맥락을 조정하는 번역적·해석학적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RQ2),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표면적인 기술적 작업을 넘어 텍스트 목적 설정, 의미·문화 판단, 장르·문체 조정 등 본질적으로 언어학적·번역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임을 논증하였다. 이는 프롬프트 품질이 AI 출력의 구조적 오류를 좌우한다는 기존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셋째(RQ3), 프롬프트 링퀴스트는 기존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달리 AI 언어 생성의 의미·문화·담화적 측면을 조정하는 언어 기반 전문직군임을 제시하였다. 표 2(C1~C5 역량 모델)에서 보듯, 두 직군은 접근 방식과 전문성 기반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넷째(RQ4), LLM 기반 번역·생성 환경에서 프롬프트 링퀴스트는 스코포스 설계자, 장르·문체 조율자, 문화·윤리 감독자, 그리고 반복적 프롬프트 설

계자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문학·법률·학술·로컬라이제이션 등 다양한 실제 현장에서 AI 텍스트 생성의 품질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밝혔다.

다섯째(RQ5), 프롬프트 링퀴스트는 번역학·언어학·AI 상호작용 역량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될 수 있으며, 대학의 번역학·언어학·AI 융합 교육, 번역 산업의 전문 교육기관, 기술 기업과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양성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번역 생태계의 전문성 구조를 재편하고 언어 전문가의 지속가능한 전문 경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제시한 연구 질문들에 대해 번역학적 이론, 생성형 AI 분석, 직군 개념화, 전문 역량 구조화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일관된 답변을 도출하였으며, 프롬프트 링퀴스트라는 새로운 개념 모델이 AI 시대 언어전문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1 학문적, 산업적 기여 사항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기여점을 시사한다:

첫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번역학적 재해석: 기존 공학 중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담론을 벗어나, 프롬프트를 텍스트 설계·목적 조정·문화 해석의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프롬프트 연구의 인문학적·언어학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둘째, 번역학의 확장된 연구 대상 제시: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 구조가 “번역적 행위”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규명하며, 번역학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인간 번역뿐 아니라 LLM 언어 생성 전체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새로운 전문직군 개념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언어 기반 AI 전문직군—프롬프트 링퀴스트—의 공식적 개념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번역학·언어학 분야의 지속가능한 직업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넷째, 언어 전문가의 미래 역할 재정립: AI가 ‘언어의 주체’로 오해되는 시대에 언어 전문가는 해석자, 텍스트 설계자, 문화·윤리 감독자, AI 언어 생성의 조율자로 새로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의를 명확히 제시하

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 AI 기반 언어 작업의 품질 향상: LLM 출력은 종종 유창하나 오류가 있는 “hallucinated fluency” 문제를 보이므로(곽은주 외, 2023; 탁진영 외, 2024; Li et al., 2024), 프롬프트 링퀴스트의 개입은 오류 감축, 문화적 적합성 보장, 문체 일관성 유지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전문 번역·법률·의료·학술 번역 등 고위험 영역에서의 필수 인력: 이러한 영역에서는 AI의 판단 오류가 치명적일 수 있으며, 텍스트 목적 및 문화적 함의를 정확히 관리할 언어 중심 감독자가 요구된다.

셋째, AI 서비스 산업의 언어 품질 책임자(Linguistic Quality Governor)로 활용 가능: 다국어 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로컬라이제이션 등에서 프롬프트 링퀴스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언어 책임자로 기능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 번역학의 이론적 확장과 언어 전문가 직군의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하는 논의로, 이후의 실증적·산업적 연구를 촉진하는 개념적 발판을 제공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그럼에도 본 연구는 개념 모델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다음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실증 연구의 제한성과 관련하여 프롬프트 링퀴스트의 개입이 실제로 텍스트 품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정량적·실험적 데이터는 향후 연구로 남아 있다. 둘째, 현재 산업계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존재하나, ‘프롬프트 링퀴스트’는 정식 직군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기에 직무·평가·훈련 체계에 대한 표준 모델이 더욱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프롬프트 링퀴스트라는 새로운 전문직군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프롬프트 링퀴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직군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현장 기반(empirical) 연구가 미흡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념적 모델 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별 전문가 인터뷰, 작업 사례 분석, 실제 프롬프트 평가 실험 등을 통해 보다 풍부한 실증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프롬프트 링퀴스트 개념의 실험적 검증 연구: 프롬프트 링퀴스트가 설계한 프롬프트 vs. 비전문가 프롬프트 비교, 번역 품질(MQM,¹⁰ COMET, human evaluation) 비교, 장르별·언어쌍별 성능 비교 실험

둘째, 프롬프트 링퀴스트 교육과정(Curriculum) 모델 구축: 텍스트 해석·답화 분석·문화 조정 교육, AI 상호작용 스킬·CoT 설계 실습, 온라인·대학원·직무 교육 모델 구축

셋째, 직군 제도화 연구: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 개발, 산업별 역할 매핑(번역 산업, 글로벌 기업, 정부·외교, 교육 현장), 전문 자격 혹은 민간 인증 체계 연구

넷째, 프롬프트 윤리(Prompt Ethics) 연구 확대: 프롬프트 기준의 투명성, 편향·차별 표현 통제, 프롬프트 책임성(Accountability) 모델 개발

다섯째, AI-Human 협업 번역 모델의 이론적 발전: 생성형 AI 시대의 번역학은 인간 중심에서 “언어 생성 시스템의 설계와 감독을 담당하는 인간 중심의 협업 모델”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의 도래는 번역가·언어 전문가의 역할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어 전문가의 고유한 해석·문화·윤리 판단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프롬프트는 단순한 기술 지시가 아니라 텍스트 목적·답화 전략·문화 해석·윤리 판단을 포함한 언어적 설계 행위이며, 이러한 프롬프트를 다루는 전문 직군인 프롬프트 링퀴스트는 AI 시대 번역·언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프롬프트 링퀴스트 모델은 생성형 AI 시대의 번역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학문적·산업적 방향을 제시하며, 이는 향후 번역학과 언어 기술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10) 다차원 품질 지표(MQM, Multidimensional Quality Metrics)는 번역 품질의 분석적 평가에 사용되는 개방형 표준화 프레임워크이다. 인간, 기계 또는 AI에 의해 생성된 번역 텍스트의 품질 문제를 식별, 분류 및 정량화하는 유연하고 계층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Mariana et al., 2015).

참고문헌

- 곽은주, 노재훈, 박미진, 전현주. (2023). AI Hub의 학습용 말뭉치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모색: ChatGPT의 번역 품질평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4), 129-169.
- 곽은주, 탁진영, 전현주. (2025). 생성형 AI 프롬프팅과 번역 효과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27(1), 1-39.
- 김대중. (2025).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의 역량 함양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핵심역량교육연구, 10(1), 79-102.
- 김현웅, 이상빈. (2025). AI 문학번역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번역 오류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번역학연구, 26(3), 147-171.
- 윤나라. (2023).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인간의 역할: 콘텐츠 생성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70, 199-218.
- 이상빈. (2024). 바벨탑 3.0의 시대, 인공지능과 번역을 논하다. 번역학연구, 25(3), 11-30.
- 전현주. (2013). 번역 관련 유망 직종과 잠재칭의 상관성. 통번역교육연구, 11(1), 213-236.
- 전현주. (2020). 인간과 기계번역의 공존 패러다임 모색: PBL 기반의 AI 번역 툴 활용 번역수업 운영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8(4), 59-96.
- 전현주. (2022). 인공지능 번역플랫폼 기반 번역가의 직명 및 직무기술의 분화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26(1), 167-193.
- 전현주. (2023). 다국어 『조선왕조실록』 번역 프로젝트 수행 가능성 모색 - 인간과 기계번역의 협업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T&I REVIEW, 13(2), 107-132.
- 전현주. (2024a). 생성형 AI 시대의 번역가의 역할과 디지털 리터러시. 융합영어영문학, 9(3), 271-303.
- 전현주. (2024b). 생성형 AI 시대의 번역가의 역할 및 요구 역량의 전환. 인문사회과학연구, 6(6), 1137-1156.
- 전현주. (2025). 디지털 시대의 창의적인 글쓰기 도구, 생성형 AI의 프롬프팅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6(2), 275-285.

- 최은실. (2025). 문장구역 수업의 보조도구로서의 프롬프트 개발에 대한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23(1), 103-126.
- 탁진영, 곽은주, 전현주. (2024).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현황 및 전망: ChatGPT를 중심으로. *융합영어영문학*, 9(2), 167-202.
- Beaugrande, R. de, & Dressler, W.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 Brown, T. B., Mann, B., Ryder, N., Subbiah, M., Kaplan, J., Dhariwal, P., ... & Amodei, D. (2020).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1877-1901.
- Deißenböck, L. (2023). *Generative language technologies and the future of text production*. Springer.
- Feng, X., Li, J., & Tu, Z. (2023). Prompt-based machine translation evaluation: Methods and implications. *Proceedings of the 2023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1124-1137.
- Forcada, M. L. (2023). Trust and distrust in the times of GenAI: Implications for translators. *Translation Spaces*, 11(1), 45-61.
- Gadamer, H.-G. (1998). *Truth and method* (J. Weinsheimer & D. G. Marshall, Trans., 2nd rev. ed.). Continuum. (Original work published 1960).
- Guerreiro, A., Marimon, M., & Forcada, M. (2023). Evaluating LLM-based translation: Opportunities and risks. *Machine Translation*, 37(3), 455-478.
- Hämäläinen, M., & Rueter, J. (2023). Prompting as linguistic design: Towards better interaction with generative language models. *Computational Linguistics*, 49(4), 789-812.
- Jiao, W., Wang, M., Huang, L., & Tu, Z. (2023). *Is ChatGPT a good translator? A systematic evaluation*. ACL Findings.
- Koehn, P. (2024). *Neural and generative translation: Developments, risks, and future dire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ngiebel, D. M., & Mooney, G. (2023). Considering the language model as a co-author: Implications for scholarly writing. *Nature Human Behaviour*, 7, 1010-1013.
- Li, Z., Toral, A., & Lommel, A. (2024). Hallucinated fluency in LLM-based

- translation: A new evaluation challenge. *Transaction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2, 985-1002.
- Liu, A., & Chilton, L. B. (2022). Design guidelines for prompt engineering: A linguistic perspective.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19.
- Mariana, V., Cox, T., and Melby, A. (2015). The Multidimensional Quality Metrics (MQM) framework: a new framework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3, 137-161.
- O'Brien, S. (2022). Human factors in post-editing. In S. O'Hagan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and technology*. Routledge.
- O'Hagan, M. (2019). The impact of AI on translation: Emerging trajectories for the profession. *Translation Spaces*, 8(2), 222-245.
- Reiss, K., & Vermeer, H. J. (2014). *Towards a general theory of translational action: Skopos theory explained* (C. Nord, Trans.). Routledge.
- Rivas Ginel, M. I., & Moorkens, J. (2025). Translators' trust and distrust in the times of GenAI. *Translation Studies*, 18(2), 283-299.
- Schäler, R. (2023). *AI, translation, and the displacement of linguistic professions*. Dublin: The Rosetta Foundation Press.
- Toral, A. (2023). Pitfalls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Research Bulletin*, 1(2), 14-29.
- Toury, G. (2012).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and beyond* (Revised edition). John Benjamins.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Routledge.
- Vermeer, H. J. (1978). Ein Rahmen für eine allgemeine Translationstheorie. *Lebende Sprachen*, 23(3), 99-102.
- Wei, J., Wang, X., Schuurmans, D., Bosma, M., Ichter, B., Xia, F., ... & Zhou, D. (2022). *Chain-of-thought prompting elicits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s*. arXiv. <https://doi.org/10.48550/arXiv.2201.11903>

Reconstructing translation studies in the era of Generative AI: Exploring the necessity and roles of the 'prompt linguist' profession concept

Hyuju Chun (transju@shinhan.ac.k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hinhan University

Abstract

The emergence of large language models (LLMs) has transformed translation practices, yet existing studies tend to emphasize technical aspects of prompt engineering while overlooking its linguistic and interpretive nature. This study proposes the 'prompt linguist' as a new professional role capable of designing, governing, and evaluating AI-generated texts from a translation studies perspective. Prompting is reconceptualized as a form of text design involving *skopos* decisions, genre and style control, cultural mediation, and iterative refinement. A five-part competency model (C1 - C5) is presented to define the expertise required for such work. The findings underscore that AI cannot autonomously manage cultural nuance or discourse coherence, reaffirming the centrality of human linguistic judgment. As a conceptual model, the study calls for future empirical validation through real-world prompt design and evaluation.

Keywords: Translation studies; GenAI; Prompt linguist; Prompt engineering; Competency model

키워드: 번역학, 생성형 AI, 프롬프트 링귀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모델

전현주(<https://orcid.org/0000-0003-4131-3348>)
신한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transju@shinhan.ac.kr; wisepearl33@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12월 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2월 16일